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62호 현대불교
2008년 1월 16일(음력 12월 9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19

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목표를 뒤야!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문 학교에서는 지수화풍으로부터 끝없는 진화와 발전을 통해서 지금의 인류가 생겼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지수화풍을 하느님이 만드셨고 인간마저도 하루아침에 만드셨다고 합니다. 저의 반 아이들 대부분이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인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아이들이 수용을 할 수 있고 부처님 가르침에도 어긋나지 않을까요?

답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말입니다. 생각해서 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지(地)수(水)화(火)풍(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수화풍의 성질과 자기 무전자의 그 독특한 맛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만 살아 있다 뿐이지 모든 게 지수화풍이 움직여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선 아마 암흑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수화풍이 제각기 살아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지만 서로 공존해서 우리 어떠한 걸 세우자고 예를 들어서 했다면, 그렇게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지니까 지수화풍은 없어지고 말입니다. '공기'로서의 능력이 발생하게 됐던 거죠.

'공기'라는 그 뜻은 뭐냐 하면 천체를 말하고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별적인 하나 같은데 그냥 능력이라고 해 뒀으면 좋겠는데 왜 '공기'라고 했을까 이겁니다. 모든 것 생명들을 소생케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공기'라고 했던 거죠. 그 후에 이들을 지어서 붙였겠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이름도 없이 그것으로써 무전자의 집단체를 이루었던 거죠. 무전자라 하면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서 '공기'로서 전체 아니 닿는 데 없이 달게 되는 항기와 같은, 에너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하여 유전자가 발생된 겁니다.

유전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나? 무전자에서 유전자가 발생될 때는 수많은 그 생명들이 유체로서 보이지 않는 그 유전자의 발생이 온 우주에 확산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로부터 어떠한 것이 형성되었느냐? 유전자로부터 형성된 것이 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별성이 다르고 우리 몸뚱이가 다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별성이요, 그 또한 별성입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차원에서 반짝거리면서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는 무전자에서 유전자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죠. 유전자가 모든 생명체들을 소생시켰다는 얘기도.

그러면 유전자의 생명이 의해서 그 체가 발생이 됐다면 수많은 별성들의 체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도.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데에도 무슨 청야대가 있으면 국방부도 있고 그렇듯이, 그렇게 별성들이 발생되고 보니까 거기에서는 무전자의 능력으로써 유전자의 표범으로써 가지각색의 물질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표범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도 없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지요. 즉 말하자면 우리의 선의 혼백이든 지 악의 혼백이든지, 혼백을 만약에 유전자라고 한다면 차원에 따라서 그 유전자는 달라지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차원이 낮으면 낮은 유전자가 될 것이고 집이 높으면 높은 대로 유전자의 차원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참나참나 고정됨이 없이 나투면서 화(化)하면서 그 물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각각 각각의 그 모습은 다 틀리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해서 그렇게 발생되는 그 유체들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왔느냐? 별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별은 반드시 북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머리와 두 팔과 두 다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개의 북두칠성이라고 하죠. 그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정부의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치인들로 하여금 모든 이 생명의 즉, 물질로서의 물체들을 생산해 냈던 거죠. 그런데 생산을 해내려 해서 해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면 이렇게 모습이 나오고 저렇게 생각한 거면 저렇게 모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하다는 거고 그것이 광대무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독특한 맛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로부터 났느냐 하는 것도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원승이로부터 해서 사는 생명은 화성으로서의 독특한 가진가짐을 가지게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중의 생명들, 그 유전자가 암흑 속의 반딧불처럼 반짝거리면서 집단을 이룬 것도 역시 바람의 성질을 아주 독특하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독특한 맛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로부터 났느냐 하는 것도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원승이로부터

그런가 하면 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의 원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느냐?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져서 비벼졌기 때문에 거기서 불이 일어난 거죠. 즉 말하자면 우리가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을 질척질척한 거와 같이 갖다 넣었더니 거기서 별개가 생기고 가스가 생기듯이 말입니다. 그 뜨거운 거기에서 아늑함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생명체가 일어나는 거죠. 그와 같이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광대무변하게 생명과 더불어 물질이 생기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그걸로부터 여러 가지로 독특하게 들에서 사는 것은 불의 성질을 따르게 됐고, 흙에서 사는 것은 흙의 성질을 따르게 됐고, 또 화(化)

됐다는 사람, 곰으로부터 왔다는 사람, 공룡으로부터 왔다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많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한군데로 규정될 수가 없는 것이 자기의 그 유전자의 진화력에 의해서 자꾸 구르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진화력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만 독특한 불의 생명의 그 근원을 가지고 있고 흙의 근원을 가지고 있고 바람의 근원을 가지고 있고 그 화합의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독특한 자기의 본성은 그대로 집착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비유해서 우리가 김가면 김가다라는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가면 벗어내지 못하듯이, 그렇게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각종 각체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각종 각체들이 벌어지면서, 불에서 진화해서 나온 것도 인간으로 됐고 흙에서도 인간이 됐고, 화해서 난 것이 전부 역겹을 거쳐 오면서 진화해서 동물로 인간으로, 즉 말하자면 고등 동물까지 진화해서 올라왔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많은 진화의 모습을 각각 가졌으니 마음도 각각이요, 몸도 모습도 각각인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모습이 나와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연쇄적으로 진화해서 올라오는 그 자체를 현재에 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올라온 것이, 바로 지금도 그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개구리대로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 뱀이 뱀대로 그냥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도 고정됨이 없다는 얘기도. 인간도 인간대로 고정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참나참나 고정됨이 없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

가 생각해서 진화하는 그 잠재의식에 의해서만이 자기 물질, 자기 형상을 그대로 자아낼 수 있다는 그런 각자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키워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는데...

문 이런 질문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큰 고민이기에 송구함을 무릅쓰고 질문을 올립니다. 스님, 저의 남편은 제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을 해 주는데도 당연한 것으로만 알고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랑이 부족해서인지요, 아니면 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지요?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답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 사지 않고 이렇게 사랑을 유지하거나 아주 값싸게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마음을 한뜻으로써 공생·공유·공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심으로 공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체로서 이렇게 일체 만물이 생기고 만성이 이렇게 같이 융합해서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나, 내가, 내가 됐고, 내가 망했고, 또는 내가 가졌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항상 그 곁집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숨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욕심은 뭘 수가 없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자기의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데 모든 게 자기는 관리밖에 안 되는데, 자기 겁니까? 들고 도는 것인가? 돈도 자기 것만이 아닙니다. 들고 도는 거기 때문에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관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기 거라고 하거든요. 자기 거라고 자꾸 독재를 쓰니까 돈은 생각을 할 때 '흥! 네 거라고?' 좋아하네.' 그러고서 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 주면 '아! 여기 가만 관리를 잘해 줘. 그러니까 내가 가야지.' 하고서 스스로 돈이 들어오는 거지 돈도 달아난 거를 쫓아내고 내 거라고 쫓아간다면 한없이 떨어집니다.

가난도 불을 데가 없어서 주인공에 맡겨서 다 일임해 버린다면 '어어, 내가 이거 정말 원수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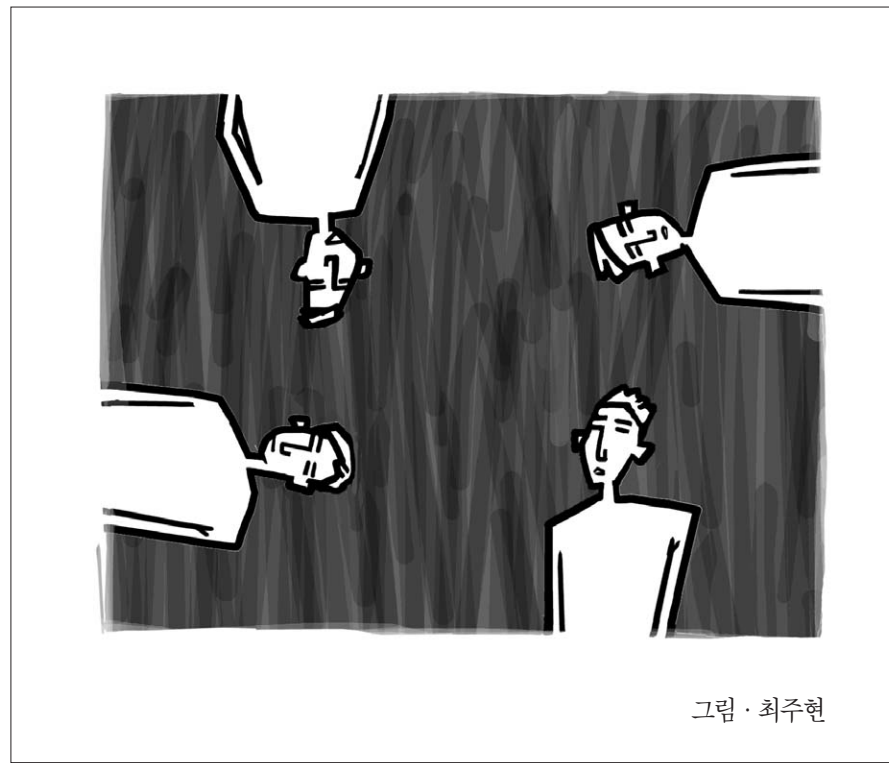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해서 사는 생명은 화성으로서의 독특한 가진가짐을 가지게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중의 생명들, 그 유전자가 암흑 속의 반딧불처럼 반짝거리면서 집단을 이룬 것도 역시 바람의 성질을 아주 독특하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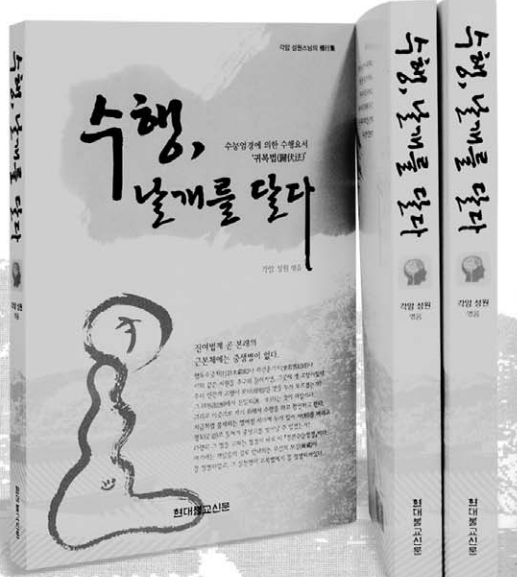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독특한 맛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로부터 났느냐 하는 것도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원승이로부터

수행, 날개를 달다

이 몸을 선정에 맡기지 50여 주 어느덧 나도 모르게 백발이 성성해졌네. 돌아다보니 구하고 채우고에 동분서주하느라 발밑도 못 밟고 심전(心田)에 여수(旅愁)만 더 했네. 이제 겨우 철들이 서둘러 벼룩을 들었으나 가을이 다 갔는데 진화가 난만한들 얼마나 견디겠나? 고요한 밤이면 깊은 생각이 더욱 잠 못 이루는 누가 있어 벼룩을 파고드는 이 통환을 알겠는가?

내 이제 몸을 태산처럼 하여 일체의 왕래를 끊고 날마다 천계에 나가 속진을 씻어 내면서 눈, 귀, 입, 막는 그러한 수행으로 잔념을 다스려서 빈 배로 소요하는 이런 것으로 선락을 삼을 것이다.

- 본문중에서



신국판 381P
가격 10,000원
정량 성원

각암 성원(覺庵 性元) 스님
· 1528년 출생 · 1958년 경주 불국사 석굴암에서 출가
· 1959년 부산 범어사 동산대중사 문하에 입문
· 1961년 부산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 수지 이후 1988년 까지 30년 간 중무에 종사
· 1988년 - 2006년 제법선방 또는 남아 등지에서 약 20년 간 수선안거 성안
· 2007년 현재 남해 화랑사에서 안거 중

*본 [수행, 날개를 달다]는 여기 화랑사에서 안거 중에 씌어졌다.

■ 구입처 02)2004-8247 종로구 안국동 175-87

현대불교신문

天機秘傳
화제의 신간
2008년 戊子年 무자년
핵심택일지
365일 매일 한장씩 한눈에 훑어 볼 수 있는
상당자가 왜왔는지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특수래정비법 공개 ...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핵심 인연래정비법에 대하여
당일 찾아온 사람의 마음을 꿰뚫기
그 사람의 현재 마음과 운을 짚어보는 법

- 매일운세吉凶판단법
- 당일 일상행사 길흉표
- 자신의 재수대통 방향자리
- 결혼 약혼 택일법
- 장래행사 이장의 길흉표
- 日辰法 보는 조건표
- 建除十二神 정국도와해설
- 임신한 아기 男女건강법
- 상담자吉凶 來去法
- 당일 불공, 고사, 기복법
- 이사방위 길흉표
- 건축,상량,개업일 판단법
- 月日辰 해당 身殺조건표
- 二十八宿 정국도와해설
- 황홀도 길흉표와해설
- 생기복덕 길흉표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국8절판 / 백초스님 편저 / 2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책 을 사고
주식 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권역판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50,000원

송월스님의 개증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까지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감응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경술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장가 50,000원

사주명리 한방치명학 4x6배판/부형지음/정장본 1권880쪽, 1권680쪽/각 권 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x6배판/이선안, 전효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